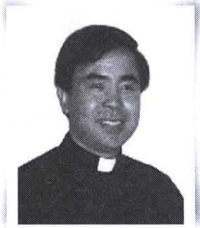


강론 ...

‘봄기운 피어나듯’



김영수 신부
(용머리 성당 주임)

정초에 오는 첫 절기인 입춘이 지났고, 오늘이 정월 대보름 날이니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도 봄기운처럼 따뜻한 사랑의 기운이 보름달처럼 차오르기를 빌어봅니다.

복음은 얼어붙은 세상에 따뜻한 봄기운을 불어 넣어주시고

마른 가지에 새 생명을 틔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죽음과도 같은 절망 속에서도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던 나병환자의 치유이야기를 통해 당신께 다가온 사람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치유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이의 태도와 예수님의 반응은 온전한 치유의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묵상하게 합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치유를 청하고자 예수님께 다가온 나병 환자의 용기와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나병환자가 예수님과 그 일행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시로서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이 나병환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나아갔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당신께서 하고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음은 겸손한 자세로서 하느님께 대한 경배를 표할 뿐 아니라 삶에 대한 경의, 이웃에 대한 존중, 자기 자신에 대한 겸허의 자세입니다. 그는 이 무릎 꿇는 행위 안에서 자신 안에 얼룩진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바라 볼 수 있었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부정과 자기소외의 어둠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병환자는 자신이 결정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달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질것을 믿는 간절한 신앙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일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나병환자의 이 믿음이 결국 버림받은 인생을 살리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청하는 나병환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불러일으켰고 예수님은 주검과도 같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춥고도 긴 겨울에도 세상은 봄을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겹고 혹독한 시련의 겨울일 자라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손길을 청하면 우리의 삶 속에도 선한 사랑의 기운이 가득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 마을 복숭아꽃 가지마다 맺히는 봄’ (玉洞桃花萬樹春)

숲머리 생각



신 개미와 베짱이

한병기
(프란치스코)

엘리사의 무덤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한번은 어떤 사람들이 시체를 묻으려다가 그 강도떼들을 만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지고 달아났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서 일어섰다.”

(열왕하 13,21)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바라볼 때면 경탄을 금치 못한다. 그가 이룬 기적들은 예전엔 미처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실감케 하는 그의 기적들은 마치 구세주의 오심을 미리 보는 듯 하다. 빵을 많게 하고 죽은 이를 살리며 불치의 병을 낫게 하였다.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처럼 그는 모든 이의 마음을 보았으며 앞으로의 일들도 내다보고 있었다. 은총과 구원은 각자에게 주어지지만 사람의 기적을 통하여 믿음을 발견해야 한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생을 마감하였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서도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미래를 예견해 주고 있었다. 사람이기에 그도 죽어야 하지만 엘리사의 죽음은 왠지 하나님께로 가는 귀향의 발걸음처럼 다가온다. 그는 험난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요 기병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위대한 예언자였다. 왕 여호아스가 얼굴을 비비며 통곡하였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예언자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엘리사는 죽었다. 그런데 그의 무덤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다. 모압 강도들에게 쫓기던 어떤 사람이 시체를 묻다가 그

냥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고 말았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고 만 것이다.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죽은 이의 시신을 통해 생명이 살아난 일은 일찍이 없었다. 엘리사는 살아서 기적을 베풀었지만 죽어서도 기적을 행하였다. 엘리사가 베풀었다기 보다는 엘리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곳은 바로 엘리사의 무덤이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죽은 이의 뼈가 사람을 살리는 영약이 되었다.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무덤이 부활의 꽃을 피웠다. 사람들은 당황하고 놀라했지만 틀림없는 현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손길은 죽음마저도 뛰어넘고 무덤도 마다하지 않으신다. 아직은 놀랍기만 하나 어쩌면 마지막 날에 있을 구원을 미리 보여주신 것인지도 모른다. 당신 아들을 보내시어 골고타 언덕에서 이루시게 될 그 영광스런 날을 바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이다.



입당송 시편 31(30),3-4 참조

주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주님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주님 이름 생각하시어 저를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제1독서 레위 13,1-2,44-46

회답송 시편 32(31), 1-2,5,11 (◎ 7 참조)

◎ 주님은 저의 피난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에워싸시나이다.

제2독서 코린 10,31-11

복음 환호송 루카 7,16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복음 마르 1,40-45

영성체송 시편 78(77), 29-30 참조

사람들이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신 것이로다. 그러나 그들은 욕심을 멀리하지 않았도다.

‘망월(望月)이야’

소나무 숲 속 아파트에 학처럼 살고 있는 지인이 어제 달이 너무 밝아 잠 못 이루었노라고 초대하여 갔다. “창 밖은 삼경 달빛 두둥실 매화꽃 한 잎 잔에 띄우다.” 어느 시인의 시를 읊으며 소나무 사이로 둥그렇게 걸려 있는 달을 바라보니 어머니의 품처럼 너그럽기만 하다.

남원 두메 산골에 살던 어린 시절,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청년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벼짚을 걷어다가,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마을 앞거리 공터에, 뒷산에서 꺾어온 청솔가지와 층층이 쌓으며 달집을 지었다. 첨성대처럼 높이 쌓인 꼭대기에 겨울 내내 조무래기들이 날리던 연도 달고, 운동회 때 펼쳐이던 만국기도 걸고, 발을 동동거리며 마음 속으로 소원을 빌며 달이 떠오르기를 숨막히게 기다렸다. 멀리 큰 산에 칠혹같은 어둠을 헤치고 마애불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둥근 달



이 떠오르면, 일제히 “망월이야!” 함성과 함께 달집에 불을 당겼다. 손에 손을 잡고 달집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달맞이 노래도 부르고, 다리미에 콩도 볶아 먹으며 한해의 덕담을 나누는 얼굴은 보름달만큼이나 환했다. 조무래기들이 불씨를 담은 깡통을 돌리며 아랫 마을로 불놀이 원정을 가는 논두렁에는 묵은 것은 다 태워버리고 새 생명, 풍년을 소망하는 불길의 새 까맣게 타 들어갔다.

끊임없이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며 순환하는 달에 대한 옛 조상들의 간절한 바람처럼, 성체를 바라보듯 달을 바라보고 성혈을 마시듯 한 잔의 차를 마셨다. “모든 근심 걱정은 송두리째 나에게 맡겨라. 내가 다 채워 주리라.”는 성경 말씀처럼 모든 어둠과 고통, 근심은 다 걷히고 우리네 삶 속에도 환하고 둥근 달이 떠오르기를 기원하며…….

양선자(아녜스) · 그림 : 황의성(세례자 요한)

짧은 묵상 긴 여운



“스승님께서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르 1,40L-

● **군산지구 평신도 지도자교육**

교구 사목국(국장=김광태 신부)은 군산지구 평신도 지도자 교육을 지난 2월 1일(수)부터 4주간에 걸쳐 나운동 성당에서 실시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평신도 지도자 교육은 군산지구 12개성당의 사목위원들과 제단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첫날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김혁태(지곡성당 주임)신부의 강의가 있었다. 김신부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현장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평신도들이 언제나 정신과 마음과 생활 깊숙이 교회정신을 간직하여 역동적인 사도직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군산지구 평신도 지도자 교육은 8일에는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 김영수 신부(용머리성당 주임)가, 2월 15일에는 '본당사목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김낙완(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 형제가, 2월 22일(수)에는 본당 복음화 계획에 대해 김광태 신부(교구 사목국장)가 강의할 예정이다.

|오안라, 김영수, 김용운 기자

● **용머리 성당 사목계획 연수**

지난 2월 5일(주일) 용머리성당(주임=김영수 신부)은 운호관에서 사목위원, 제단체장, 구역장 등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당 발전 계획과 가톨릭센터 신축을 위한 모금 운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한 사목계획 연수를 가졌다. 특히 내년에 보좌 신부를 모실 계획으로 사제관 증축과 교육관 신설, 청소년 사목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임 신부는 본당 당면 과제로 함께 하는 공동체 사목 실현 일환으로 지속적인 선교운동, 특히 잃은양을 다시 성당에 불러 모으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자고 강조하였다.

|홍보국 정리

● **팔복 성당 최종수 신부 사제서품 10주년 기념행사**



팔복 성당(주임=최종수 신부)은 지난 2월 2일(목) 최종

수 본당신부의 사제서품10주년을 기념하며 기념행사를 가졌다. 최종수 신부는 "사제의길을 시작할때 하느님께 서약한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성경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많은 신자 분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였다.

|이대성 기자

● **전동 성당 사제관 보수, 복원 완공**



전동성당(주임=김준호 신부) 사제관(지방문화재 제178호)이 1년 반 동안의 보수·복원 공사를 마무리하여 1월 25일 이사했다.

비가 새던 지붕을 동판으로 새롭게 교체하고, 막아서 창고로 쓰던 회랑도 원형을 복원하였으며, 내부도 세련되고 따뜻하게 정비되었다. 그 동안 전셋집에서 생활한 주임신부는 좀더 편안하게 사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제관 정비에 물질·영적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홍보국 정리

● **김순태 신부 부친 故 김종식 형제 장례미사**

팔마 성당 주임 김순태 신부 부친 김종식(요한)옹이 지난 1월 29일 오전 8시경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자택에서 선종했다. 향년 92세.

고인의 장례미사는 2월 1일(수) 고산 성당에서 교구장 이병호 주교 주례와 교구 사제단 합동으로 봉헌됐으며, 유해는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천호공소 묘지에 안장됐다. 이날 미사중 이병호 주교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축제'라고 말하며 "이 세상을 성실하게 잘 사시고 할 일을 다한 요한 형제가 하느님의 영원한 품 속에 안기시도록 기도하자"고 말하였으며, 김순태신부는 고인을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관영 기자

KIA **기아자동차**
 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신용입니다.
 · 승용, 1톤, RV등 전차종 다양한 할부이벤트 (계약금 10만원, 최장 60개월 할부가능)
 · 신차구입시 중고차를 최고가로 매입해드립니다.
 · 타사 차량도 상담해드립니다.
 ■ 차량상담 : 011-793-8686
 ■ 야 간 : ☎(063)254-7226
 담당: 차장 김영기(스테파노), 정영주(요셉마)

스스로한의원
 원장 : 송승현(토마), 최윤미(아기매)
 적외선체열진단
 운동치료 · 체형교정클리닉
 ☎(063)254-1075
 전주 티마트 아외주차장 앞

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
대 학 약 국
 (전북대병원 신정문 앞)
 약학박사 : 김용기(베드로)
 ☎(063)275-5700
 FAX. (063)275-5760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이종관(도민교)
 ☎ 016-9612-9380 /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엠마오하우스 펜션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도 관광오시는 신자여러분의 여행을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차량 및 호텔, 펜션, 민박)
 문의 : 010-4733-5005,
 064-752-6159
 대표 : 좌순옥 (가밀라)

모든 검도인의 자부심과 희망의 공간, 최고의 시설을 갖춘 16년 전통과 명성의
세심검도관
 국가대표출신, 검도 7단, 18년 대학강의 경연교수
 이학박사 **김태경(빈첸시오)** 직접지도
 서신동 본병원 옆
 ☎(063)224-5455
 H · P 011-657-9965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런 소리를 추구합니다.
독일보청기
 김제점 : 구 간이배차장앞(546-3652)
 부안점 : 부안단위농협앞(581-3537)
이길재(베드로) 김해숙(살비아)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

오갈데 없는 어르신 30분 가족처럼 돌봐



빈첸시오의 집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자선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첸시오 성인의 정신에 따라 의탁할 곳 없는 어르신들이 기쁘고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돌봐 드리는 곳이다.

빈첸시오의 집은 처음 신기술(안드레아) 형제가 정읍군 이평면 두천리에 위치한 (구)이평 북 초등학교를 임대하여 수리한 후, 1997년 1월에 개원하면서부터 소박하게 시작이 된다. 그러던 중 IMF로 인해 안드레아 형제의 사업도 큰 타격을 받아 결국 이재후 신부님께 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수 조건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이재후 신부님께서 직접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재후 신부님은 많은 고민 끝에 양로원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전주 근교로 이전을 서두르게 되었다. 마땅한 장소를 물색해 오던 중 완주군 비봉면 (구)수선 초등학교 고산분교의 매각에 공개입찰로 낙찰되어 개축공사를 시작하여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양로원은 2002년 1월에 이전하였다. 이재후 신부님은 양로원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결국 전주 가톨릭 사회복지회 (사회 복지 법인)에 증여하게 된다. 현재에는 관리 책임자인 정경순 (프란체스카) 자매와 네 명의 직원이 삼십 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드러나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과 발이 빈첸시오의 집 구석구석에서 빛을 발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규칙적으로 방문하여 목욕과 이·미용 봉사, 그리고 세탁 봉사며 청소 봉사를 통해 시간과 마음을 오롯이 봉헌하고 때로는 어르신들의 다정한 자식이며 손주도 되어야 하고, 때로는 치매노인들이 밤새워 뜬어놓은 옷이며 숨이불을 꺾어야 하는 일도 그들의 몫이다.

예전에는 성당에서 모아 준 성미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하루 평균 10kg의 쌀이 소비되다 보니 새삼 그런 것들조차도 아쉬우신지 신부님은 혹시 지금도 성미를 모으는 성당이 있는 지를 자꾸만 물어 보신다. 그러나 교구 신자들의 이해와 관심이 아직은 부족한 편이다. 아무래도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이다 보니 교통이 불편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왕래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난방비도 큰 걱정거리로 떠오른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겨울이면 미리 걱정이 앞선다. 좀더 멀리 내다본다면 심야전기 시설로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설치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은 것이다.

턱턱치 않는 예산이다 보니 직원 채용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은 수의 직원이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소홀해지게 되거니와, 직원들이 이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직원들을 너무 혹사하고 있지 않나 하는 미안함으로 원장 신부님의 마음은 언제나 무겁기만 하다.

취재 | 김혜선(아네스) 사진 | 최경호(요수아)

후원계좌 지로번호 : 7607315 (은행, 농협, 수협)
 농협 : 501110-52-054432 이재후
 국민은행 : 504-01-0309-967 이재후

젼인아트

전진아 (실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

세무사 최준철 사무소

세무사 최준철(베네딕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7가 113-12 층

(송천우체국 옆)

☎(063)255-6200

FAX.(063)255-6202

HP 011-9453-3547

e-mail : eratojun@hanmail.net

패적인 입원실, 물리치료실

(의사) 한빛정형외과

원장 : 김선규(라파엘), 이정미(글라리아)

- 밤10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영등동 알리앙스 웨딩홀옆)

백 마익스 프레스

-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용달사업부
- 고층사다리보유 · 24시간 인부대기
- 반포장 · 1톤, 2.5톤, 3톤 차량보유

편리하고 안전한 이사 백마익스 책임하겠습니다.

이정환(마르코) · 이정미(프란체스카)

☎(063)253-2452, H · P 019-678-2486

080-050-2482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 2월 19일(주일) 오후 2시~5시

대상 :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분

장소 : 서울 돈암동 본원

문의 : www.columbn.to /

016-709-9302

전주교구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일시 : 2월 24일(금) 밤 11시~새벽 4시

장소 : 전통성당

특별강사 : 고영민 안드레아(서울교구)

주관 : 전주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원평 천주교회사무장 구함

세례받은지 3년 이상된 성실한

형제(연령제한 없음)

연락처 : 원평 천주교회

사무실 : 543-0881

사제관 : 543-0880

삼례시우수도회 돈보소 직업훈련생 모집

대상 : 만 15~25세 남자, 중졸비 이상

부분 : 기계과(기계조립) 1년과정 50명

교육 :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인성교육

특징 : 교육비 및 기술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고졸반운영, 방통고 편입학 지

도, 취업알선

전형 : 2006. 2. 24까지 수시접수, 면접 및

적성평가

문의 : 02-833-4010



교구장 일정

- 사회주교위원회 CBCK
2월 13일(월) 오후 2시
-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CBCK
2월 14일(화) 오전 11시
- 재무평의회
2월 15일(수) 오후 2시
- 새사제 학교강의
2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 재경 전북신우회 신년하례 및 피정
2월 19일(주일) 오후 3시 서울 까리따스수녀원

미사 · 행사 · 모임

- 가정성화 미사
2월 13일(월) 오전 11시 치명자산 성당
- M.B.W 끈비벤자
2월 13일(월) 오후 7시 센터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군산 월례미사
2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재무평의회
2월 15일(수) 오후 2시 교구청
- M.E 108차 주말
2월 17일(금)~19일(주일) 천호
- 11차 신입교사 학교
2월 17일(금)~19일(주일) 해월리
- 본당 선교분과위원회 교육
2월 19일(주일) 오전 10시 윤호관
- 전주교구 여성연합회 정기총회
2월 28일(화) 오전 10시 센터
- 익산 하나회 미사
2월 19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 초남이 성지 사순절 미사
(월)오전 9시 30분 버스출발
(전동성당-중앙-덕진-동산)
(매일)오전 10시 30분 미사봉헌
단체예약 214-5004(사무실) 3013(수녀원)
(토)오후 2시 봉고출발(중앙성당-덕진-팔복-동산)

교육 · 피정 · 연수

- 본당 사무장(원) 연수
2월 14일(화)~15일(수) 해월리 피정의집

- 본당 평신도지도자 교육
(전주지역, 김정교부, 임순남무진장지구)
2월 14일(화) 오후 7시~9시 삼천동
- 본당 평신도지도자 교육(군산 지구)
2월 15일(수) 오후 7~9시 나운동
- 신입생 피정
2월 15일(수)~16일(목) 해월리
- 가정분과 · 여성분과 위원교육
2월 12일(주일) 오전 9시 30분 센터 3층
대상 : 가정분과위원, 본당 여성분과
회비 : 10,000(중식, 미사 있음)
- 가정성화를 위한 계절강좌(분기별 4회)
대상 : 일반신자, 여성연합회 임원,
가정분과위원
회비 : 30,000원 / 장소 : 가톨릭 센터
신청 : FAX 285-0049 가정사무부
일시 : 1차-2월 14일, 21일, 28일
(주제 : 산모, 유아, 아동의 심리와 양육)
2차-5월 2일, 9일, 16일
(주제 : 부부관계)
3차-7월 4일, 11일, 18일
(주제 : 사춘기 자녀와 부모관계)
4차-10월 24일, 31일, 11월 7일
(주제 : 자녀를 떠나보내며, 제2의 인생 중년기)
(화) 오전 10시~12시 30분
- M.B.W 공동체수련회
2월 20일(월)~22일(수) 오후 2시 30분
주제 : 우리시대 영성
장소 : 해월리 피정의 집
참가비 : 50,000원(※교구차량 제공)
국민은행 502-21-0862-307 김정현
신청 및 문의 : 김정현 신부 285-0041
신청기한 : 2월 13일까지
- 가정상담 봉사자학교(1년과정)
기간 : 1학기-3월 2일~6월 22일
2학기-8월 31일~12월 14일
매주(목) 오후 2시 30분~5시 총 75시간
장소 : 윤호관 / 인원 : 선착순 30명
대상 : 교리신학원 졸업생, 상담 및 성교육, 부모교육에 관심 있는 신자분, 대인관계 향상에 관심 있는 분, 자기성장에 관심 있는 분.
등록금 : 각 학기별 120,000원
신청 : 2월 16일까지(285-0041)
가정사무국으로 직접 신청
- 청년성서 36차 창세기 연수
2월 16일(목)~19일(주일) 나바위

- 새사제 연수
2월 16일(목) 오전 10시 센터
- 본당 평신도지도자 교육(익산남북 지구)
2월 17일(금) 오후 7시~9시 영등소라
- 선교교육
2월 19일(주일) 오전 9시 30분(미사봉헌)
대상 : 본당 선교분과위원장, 선교분과
위원 및 사목위원, 관심있는 신자
장소 : 윤호관 / 참가비 : 1만원(중식,교재,간식제공)
준비물 : 필기구, 미사준비
교육내용 : 선교의 필요성, 구체적인 선교방법,
선교에 관한 공동체 훈련, 파견미사
신청 : 교구청 사무국
- 가톨릭 사진가회 정기출사
2월 19일(주일) 오전 7시 교구청

기타

- 가톨릭학당단 단원모집
일시 : 2월 28일까지
모집방법 : 가입 신청후 오디션
모집인원 : 소프라노 10명, 알토 4명,
테너 5명, 베이스 5명
문의 : 최만규(011-638-5346)
- 사회복지사 모집(진달네집)
직종 : 사회복지사 0명
분야 : 사무행정 업무 및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분야
자격 : 운전가능자, 컴퓨터(워드, 엑셀, 파워
포인트) 사용 가능자 우대
제출서류 : 이력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자기소개서 각 1부
기간 : 2월 15일까지
문의 : 222-2786
교통 : 시내버스 79번(금산사 행)
- 언어치료사, 보육교사 모집
(작은천사어린이집)
대상 : 언어치료사 1명, 보육교사 0명
자격 : 해당자격증 소지자
서류 :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
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 등본
문의 : 834-7607, 8/ 010-9860-7607
- 전주가톨릭신학원 성서연수과(기초) 모집
대상 : 전주교구 모든 신자
수강료 : 70,000원/ 문의 : 255-2678
모집 기간 : 2월 13(월)~ 3월10(금)
개강 안내 성서연수과 (성서기초과정)
전주(신학원): 3월 2일(목) 오전 10시
군산(나운동 성당) 3월 6일(월) 오전 10시
익산(창인동 성당) 3월 6일(월) 오전 10시
남원(쌍교동 성당) 3월 9일(목) 오전 10시

새 가톨릭센터 신축현금 내역(1/30~2/5)

익명 500,000
김동길 100,000

좋은 영화- 노팅힐

2월

영국 런던의 노팅힐이라는 곳에서 서점을 운영 하는 평범한 남자가 우연히 할리웃의 정상급 여배우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로맨틱 코미디.

일시 : 2월 15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상영시간 : 123 분 / 12세 관람가
문 의 : 홍보국 285-0041

동전주 지구 본당 소식

교 산

주임신부 : 263-4019 사무실 : 262-4171 주임신부 : 이태주
 수녀원 : 263-4110 사목회장 : 김중서

- ◎ 예비자 인도에 적극 참여합니다*(교리시작-2월26일 전9시)
- 1. 유 안나 수녀님을 환영합니다
- 2. 구역방문미사 : 15일(수)-성제구역, 16일(목)-읍내2구역, 17일(금)-서봉구역(*미사시간 저녁8시)
- 3. 평신도 지도자 교육(2) : 14(화) 후 5시30분 출발 (*사목회 임원은 전원 참석바람)
- 4. 레지오 단원교육 : 16일(목) 후1-4시(레지오단원 전원 참석 할것)
- 5. 교무금 및 센터신축금을 월 분납으로 분할해 주십시오
- 6. 감사헌금 : 임정규(5만), 송인성, 최영애(각3만원)*감사합니다
- 7. 금주 모임 : 일-꾸리아회, 청년회, 구역모임, 수-대건회, 금-제대회, 빈첸시오회 8. 금주 성당청소 : 백석공소
- 지난주 봉헌금 : 1,305,200원 ■ 교무금 : 2,847,000원
- 사랑의 성금 : 161,500원

금 암

주임신부 : 251-1912 사무실 : 251-1911 주임신부 : 김요안
 F A X : 251-3850 수녀원 : 253-0325 사목회장 : 나인구

- ◎ 정선희(마리아)수녀님 본당 부임을 환영합니다.
- 1.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입교를 권유하며 교리반에 인도합니다 * 수요일-수요일 전 10시, 목요일-목요일 후 7시30분, 일요일-주일 전 8시
- 2. 금주 모임 ① 12구역 남성구역 모임 - 13일(월) 후 6시30분 ② 10구역 남성구역 모임 - 16일(목) 후 7시30분 ③ 안나회 - 17일(금) 전 10시 ④ 문호회 - 19일(주일) 교중미사 후
- 3. 유아세례 : 18일(토) 후 3시 4. 재의 수요일 : 3월1일(수) 전 10시 * 가정에 있는 성지가지들 28일(주일)까지 - 성당 출입구 통
- 5. 청년성가대 동계수련회 : 18일(토)~19일(일) 대건
- 6. 사무장 연수 : 14일(화)~15일(수) 해월리
- 7. 감사헌금 : 정순덕, 익명 각 10만
- 지난주 봉헌금 : 1,919,350원 ■ 교무금 : 3,742,000원

봉 동

주임신부 : 261-1005 사무실 : 261-1004 주임신부 : 범영배
 F A X : 261-1006 사목회장 : 김진호

- 1. 금주모임 ①꾸리아, 구역장 모임 - 공식미사후, ②요한회 - 15일(수)후 8 : 00
- 2. 차주모임 : 성모회, 울프레아, 가리파교회 - 공식미사후.
- 3. 각 가정에 보관하고 계시는 성지가지들 회수 하오니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4. 금주전례 : 해설 - 광석군, 독서 및 복사 - 김병현, 한미숙. 제물봉헌 - 원인석(모이세)부부.
- 5. 차주전례 : 해설 - 신미숙, 독서 및 복사 - 원문환, 이준희. 제물봉헌 - 박윤규(안토니오)부부.
- 6. 미사안내 : 금주 - 사도의 모후pr., 차주 - 다윗의 적루pr.
- 지난주 봉헌금 : 862,000원 ■ 교무금 : 880,000원

소 양

주임신부 : 244-1771 사무실 : 244-3007 주임신부 : 영제철
 F A X : 244-6767 수녀원 : 244-6762 사목회장 : 유영수

- ◎ 오늘은 연중 제6주일입니다.
- 1. 금주모임 : 요셉, 안나, 바오로, 모니카, 밀알, 아가페회-공식미사 후
- 2. 차주모임 : 울프레아-공식미사 후 3. 청년회 중고학생회 : 18일(토), 오후7시30분
- 4. ①제물봉헌(안나회20만원), 포도주봉헌(요셉회10만원) ②감사헌금 : 김경탁사도요한(5만원), 유옥수산나(20만원) * 감사합니다.
- 5. 평신도 지도자 교육 : 매주 화요일 오후7-9시, 삼천동성당
- 6. 사목회 임원 임명 : 선교차장(공정자안젤라), 가정분과장(황용우베드로), 밀알회 회장(한경윤사도요한) * 본당을 위해 많은 수고바랍니다.
- 7. 차주전례 : 해설 - 유영철, 독서 - 허윤성, 김경숙 기도 - 김경숙 복사 - 김수현, 유원봉 예물봉헌 - 유원봉(베드로), 이덕자(모니카) 부부, 차당은행 - 윤상기(프란치스코)님
- 8. 성당 청소 : 청년회
- 지난주 봉헌금 : 776,800원 ■ 교무금 : 2,684,000원 ■ 2차헌금 : 157,900원

아 중

주임신부 : 244-2268 사무실 : 244-6768 주임신부 : 전종복
 F A X : 244-6767 수녀원 : 244-6762 사목회장 : 홍성준
 홈페이지 : http://www.gjung1004.net

- ◎ 2월은 예비신자 인도의 달입니다. 예비자 인도에 적극 동참바랍니다.
- 1. 금주 모임 ① 전례반과 모임 - 오늘(12일) 교중미사 후 ② 성모회, 자비회, 모니카회 - 15일(수) 미사 후
- 2. 사무장 연수 : 14일(화) ~ 15일(수)까지
- 3. 견지 특별 교리 : 15일(수) 후 8시, 강사 : 왕수홍(세례차요한)신부님, 주제 : 예수님과 성령 4. 기쁨의 센터 견지 기금 : 십일 4세대, 신일액 240만원 신일 총 세대는 186세대, 신일 총액 8,744만원, 감사합니다.
- 5. 성령 세미나 신청 접수 : 일시 : 2월 27일(월) ~ 3월 4일(토) 후 8시, 성당 신청 대상 : 견지 신청자 외 본당 교우 모든 분들 참가비 : 2,000원, 접수 마감 : 26일(일) 오전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람.
- 6. 레지오 마리아 간부 교육 : 17일(금) 후 7시, 강사 : 이정자(마리아)
- 7. 초등부 교리 및 개회 미사 : 18일(토) 후 3시 30분
- 8. 오늘(12일)은 자비회, 모니카회 회비 수납 주일입니다.
- 9. 감사헌금 : 함지수 - 삼만 감사합니다 10. 금주 청소 : 2구역 1,2만
- 지난주 봉헌금 : 2,172,800원 ■ 교무금 : 1,885,000원

용 진

주임신부 : 244-3218 사무실 : 244-3217 주임신부 : 한병현
 F A X : 243-3217 사목회장 : 이부소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YJcatholic

- ◎ 봉사골 석산반대 천막농성이 630일을 넘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두익, 신촌 신자분들과 주민들께 격려를 보냅니다.
- ◎ 신원산업의 석산전입을 주민들이 막는 과정에 신원산업의 폭력으로 마을주민, 이종식-요한, 이소이, 조순이 3명이 각각 2주, 3주, 4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1. 금주모임 : 대건회, 사랑의 샘 꾸리아 - 교중미사 후
- 2. 차주모임 : 요셉회, 셋별회 - 교중미사 후
- 3. 금주전례 : 해설 - 이인기, 독서 - 정재호, 이연희 예물봉헌 - 홍익신(바오로) 부부, 성당청소 - 암정, 오천, 소암 구역
- 4. 차주전례 : 해설 - 황의준, 독서 - 옥상호, 김희춘 예물봉헌 - 김종국(안드레아) 부부, 성당청소 - 신촌 구역
- 지난주 봉헌금 : 465,000원 ■ 교무금 : 480,000원

우 아

주임신부 : 241-1273 사무실 : 241-1274 주임신부 : 권이복
 F A X : 241-1275 사목회장 : 노송남
 홈페이지 : http://www.wooa.or.kr

- ◎ 세포가 살아야 온몸이 살지요? 반도임은 본당의 세포입니다.
- ◎ 전년도 교무금 완납과 금년도 교무금 신임을 부탁드립니다.
- ◎ 제6기 새신자 입교식 : 3월5일(일), 교리반 개강 : 3월7일(화)
- 1. 금주 모임 ① 반석회, 울프레아 - 교중미사후 ② 아가페회 - 15일(수) 미사후 ③ 성심회 - 16일(목) 미사후
- 2. 차주 모임 ① 대건회 - 교중미사후 ② 제대회 - 22일(수) 미사후
- 3. 견진성사 : 3월 19일(일) 미사집전 - 이병호(빈첸시오)주교님 * 신청자격 - 15세 이상 첫 영성체 및 세례성사를 받은 신분 * 신청서 제출시 세례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4. 초등부 주일학교 개학 : 3월 4일(토)
- 5. 감사헌금 : 이순덕(세실리아) 20만
- 6. 공동 번역 성서 모읍니다.
- 7. 차주 성당청소 및 미사안내 : 기록하신 어머니 Pr.
- 지난주 봉헌금 : 1,227,500원 ■ 교무금 : 1,630,000원

인 후 동

주임신부 : 243-5223 사무실 : 242-5022 주임신부 : 한기훈
 F A X : 241-8317 수녀원 : 245-8875 사목회장 : 황록현
 홈페이지 : http://fr.catholic.or.kr/jhk59
 전화번호 : http://cafe.daum.net/christhaha

- 1. 오늘 모임 : ① 바오로회 - 교중미사 후 !
- 2. 주간 모임 ① 울프레아 - 16일(목)후8시 ② 안나회 - 17일(금)전10시
- 3. 작년도(2005년)성지가지 갖다 주십시오 * 수집장소 : 계시관 아래(바구니)
- 4. 인후신행 정기총회 : 12일(일) 전11시30분(강당) * 신자 중 인후신행 조합원은 전원 참석 바람 !
- 5. 2006년도 첫 영성체 가정 교리반 모집 * 대상 - 06년도 3 - 6학년에게 재학하는 첫 영성체를 하지 않은 어린이 * 부모님 예비모임 - 12일(일)교중미사후
- 6. 감사헌금 : 아옥현 20만, 우진 10만, 최선용 3만 * 감사합니다.
- 7. 성당 청소 담당 : 2월18일(토) : 결백하신 모후, 성실하신 모후 외부(남성)청소 : 치명자의 모후
- 8. 보편 지향 기도 및 봉헌 : 금주 - 현대구역 차주 - 삼호구역
- 지난주 봉헌금 : 1,703,950원 ■ 교무금 : 2,345,000원

중 앙

주임신부 : 277-1713 사무실 : 277-1711 주임신부 : 김동준
 보좌신부 : 278-1713 수녀원 : 277-1711 주임신부 : 김주철
 F A X : 253-1714 사목회장 : 박동근

- ◎ 2006년도 예비신자를 새롭게 모집합니다.
- 1. 사목회 : 2월 12일(오늘) 교중미사 후에 있습니다.
- 2. 사무장·사무원 연수 : 2월 14일(화)~15일(수) 장소 - 해월리 피정의 집 * 본당 사무실 업무는 없습니다.
- 3. 성지가지 수거합니다.(2월 26일까지)
- 4. 매일 성서쓰기(구약성서) : 2월 둘째주(2월 13일(월)~2월 19일(주일) 사무엘기 상권 23장부터 ~ 25장까지 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412,100원 ■ 교무금 : 6,410,000원
- 해외원조주일2차 : 881,500원

호 성 동

주임신부 : 241-0075 사무실 : 241-1140 주임신부 : 현유복
 보좌신부 : 243-5733 수녀원 : 244-0094 보좌신부 : 박성민
 F A X : 241-1226 홈페이지 : http://hosong.or.kr 사목회장 : 이영수

- ◎ 예비자 입교식 : 오늘 교중미사 후 * 오늘 입교하신 형제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레지오단원 교육 : 16일(목) 후7시, 초청강사 - 김광태(사목국장)신부님
- 1. 주간모임 ①요셉회, 호성회-오늘 교중미사 후 ②청년회-오늘저녁미사 후 ③푸른송 어머니회-17일(금) 오전미사 후
- 2. 차주모임 ①전례대회의-19일(주일) 오전9시 ②사목회 회장단회의-19일(주일) 교중미사 후
- 3. 주간평일미사(간편성) : 15(수), 17(금), 17(금)-전10시, 16(목)-새벽6시, (한대씩만 있음)
- 4. 교구청 신축헌금 신일 누계 : 274,038천원(신일 안하신분 속히 신일바랍니다.)
- 5. 감사헌금 : 이완식-10만, 안병일, 익명-각5만 * 감사합니다.
- 6. 성지가지회수 : 가정에 있는 성지가지 26일까지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 7. 본당 사무원 모집 : 대상-신자로 컴퓨터 활용 가능한자, 적임자 추천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247,790원 ■ 교무금 : 2,859,000원 ■ 2차헌금 : 993,020원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6년 2월 5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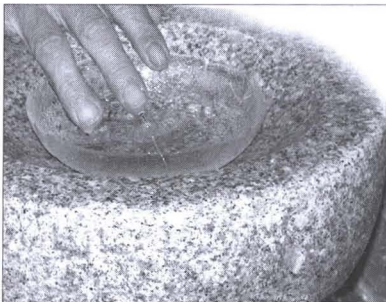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4,002,135	26.68%
사제단	1,000,000	623,661	62.37%
개인 및 타지역 (특별헌금)	1,500,000	386,213	25.75%
수익사업	500,000	221,808	44.36%
합계	18,000,000	5,233,817	29.08%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임실
- 신축기금 배정액 50%이상 납부한 본당 : 삼례, 옥봉, 여산, 용안, 인후동, 나바위
- 신축기금 배정액 40%이상 납부한 본당 : 금암, 봉동, 중앙, 서신동, 상삼례, 팔복, 대야, 월명동, 조촌동, 팔마, 신태인, 쌍교동, 진안, 금마, 황등, 원평, 장수, 숲정이, 나운2동, 솔내, 무주, 복자, 둔율동

아하! 그렇구나

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를 꼭 찍어야 하나요?



어느 성당이든지 입구에는 항상 성수 그릇(성수대)이 놓여 있습니다. 성수란 말 그대로 '거룩한 물'이란 뜻이며, 성스러움을 방해하는 더러운 것을 말끔히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종교 의식에 물을 사용하는 것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인도의 힌두교 또는 이집트의 고대 종교와 같은 많은 종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성수도 근원적으로는 성스러움을 방해하는 죄스러운 것, 즉 악마를 쫓는 의미로 시작되었고 현재도 그런 의미로 사용 됩니다 (탈출 30,18-21 참조). 성당에 들어가면서 성수를 찍는 것은 내 죄를 씻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당에서 나올 때에는 성수를 찍지 않아도 됩니다. 들어갈 때 이미 깨끗해지고자 성수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PD하느님, DJ예수님' 중에서